

8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잭슨홀 훈풍'에 연중 최고	주택지표 호전과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4일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음. 2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현재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5.91포인트(1.67%) 오른 9,505.96으로 마감, 연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음. 다우지수가 9,5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처음임.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18.76포인트(1.86%) 상승한 1026.13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 역시 31.68포인트(1.59%) 뛴 2,020.90로 연중 최고 지수를 나타냈음.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이번주 각각 2.2%, 1.8% 올랐음. 미국의 7월 기준주택매매가 예상을 뛰어넘어 2년래 최고치로 증가한 영향으로 미 증시는 장초반부터 강세를 유지했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경기회복 확신이 확산돼 매수 주문이 늘었음.
유가 연중 최고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98센트 오른 73.89달러로 마감했음. 이로써 국제유가는 이번주 6.1% 급등했음. 장중 한때 배럴당 74.72달러까지 상승,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기준주택 매매 2년래 최대 증가...버냉키 발언 호재	미국의 7월 기준주택매매는 2년래 최고치로 증가했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미국의 7월 기준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7.2% 증가한 연율 524만채를 기록했다. 기준주택매매는 전년동기대비로도 5% 증가했음. 기준주택 판매는 연율 기준으로 지난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지난 1999년 이후 10년래 최대임.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연율 500만채를 크게 상회한 수준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날 캔자스시티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FRB 심포지움에 참석, "전세계 경제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공격적인 조치에 힘입어 경기침체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버냉키 의장은 "지난 1년간 미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후 경제 활동이 미국과 해외에서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다"면서 "경제가 단기간내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제목	주요 내용
中 상업부동산 거래액 美 2배..전세계 27%	부동산정보업체 리얼캐피탈어널리틱스(RC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규모는 162억달러, 영국의 거래규모는 137억달러에 그쳤음. 반면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규모는 영국과 미국의 2배에 달하는 312억달러에 달했음. 이는 상반기 전 세계 거래규모의 26.8%를 차지. RCA의 덴 파울로 이사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무대에서 중국이 다른 서방국가 보다 더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극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음. 중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각을 보인 것은 중국 당국의 대출 규제완화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S&P "올해 韓 경제성장률 전망 -1%대로 상향"	S&P는 21일 한국의 신용등급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높은 -1.5%~-2%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수비르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3%~-2.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면서 "-1.5%~-2.0%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S&P는 또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4.5% 수준으로 예상.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3%~2.8%, 내년에는 3.3~3.8%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음.
뉴SM3, 두달만에 `2만5천대` 질주..아반떼 긴장	2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뉴SM3는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두 달간 총 2만5,589대의 계약이 이뤄졌음. 또 지난 달 13일 공식 출시된 이후 한 달간 6,543대가 출고된 것으로 집계. 현재 2만명에 가까운 고객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음. 특히 지난 두 달간의 계약 물량은 지난해 1년간 SM3의 내수 판매분인 1만9,246대보다 6,000대 이상 많음. 르노삼성은 이같은 뉴SM3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1만3,656대를 팔았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 출범 이후 최고 판매실적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